



# 2020 6월~2022예비 파이널 기출 분석 자료

오르비 성남고 조경민

조경민의 마지막 기출 분석 가이드.

자료 설명

1. 지금 시점(11월 중~12월 2일)에 마지막으로 2020, 2021 기출을 볼 때 참고할 점들을 담았습니다.
2. 너무 어려운 애기나, 지금 지적해봐야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최근 기출 해설에 대한 오개념 논란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출 벼락치기'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기출을 다 풀고, 기출 문제를 옆에 펼쳐 놓고 보시면 됩니다. 기출을 많이 보셨을수록 얻어가는 것이 많을 겁니다.
4. '생각해 볼 지점들'의 경우, 정답을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조경민 파이널

2020 6월 모의고사 「조웅전」 [23~26]

원수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창하여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군할 동안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B] 이날 함곡에 도달하니 해는 서쪽 산 위로 떨어지고 달은 동쪽 고개 위로 떠올랐는데,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에서 슬피 울고, 그윽한 두견성은 불여귀를 일삼았다. 갈 길은 험악한데 동쪽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여서 층층이 험한 산봉우리는 가슴을 찌르는 듯하고 야광은 회미하기만 했다.

읽으면서 당연히 해 봐야 할 생각 : 왜 슬픈가? 왜 염려가 끊이지 않는가?

**Comment.** 글의 맥락상, '원수'는 꿈에서 함곡에서 번국 병사들이 매복하여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심란한 상태다. 다만 꿈에서 그 정보를 들었음에도 함곡으로 향하고 있으니, 꿈 속의 말을 100% 확신은 못하고, 그냥 찝찝한 기분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물의 '감정'과 '감정의 근거'는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도록 하자.

**Topic.** '그윽한 두견성은 불여귀를 일삼았다'

두견성은 불여귀를 일삼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사실 두견성은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말하고(이건 파악한 학생들이 많다), 불여귀는 두견새를 의미한다. 두견새의 울음소리가 두견새를 일삼는다니...? 이렇게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결국 본인이 생각하기엔 저 문장 자체의 해석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B]를 둘러싼 맥락이 중요해 보인다. '원수'는 꿈에서 함곡에 적이 매복해 있다는 정보를 얻었고, 그 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이 정보는 사실로 밝혀진다. [B]는 그냥 '뭔가 불길한 징조' 정도로 통쳐서 읽으면 되는 부분이고, [B]안의 표현들에서 불길함, 스산함을 감으로 느꼈거나, 앞서 말한대로 글의 맥락을 이해했다면 저 한 줄을 해석하지 못했더라도 틀릴 일은 없었을 것 같다.

**TMI. 두견새?**

소설이든 시든, 두견새, 접동새, 소쩍새는 익숙할 정도로 자주 나온다. 두견새와 소쩍새는 다르고, 접동새는 지역에 따라 두견새를 칭하기도, 소쩍새를 칭하기도 한다. 옛날 사람들은 애네를 같다고 봤다. 따라서 현대의 지식으로 바라본다면, 옛날 시나 소설에 이 세 이름을 혼동하여 쓴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김소월의 시 '접동새'도 소쩍새를 애기한 것이라 한다. 이거 자세히 알려고 하면 상당히 골때리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④ [A]에서는 공간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이, [B]에서는 계절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쓸쓸함이 강조되고 있다.

이거는 당시에 틀린 선지로 나왔다. [A]엔 '긴장감'이 없고 [B]에는 쓸쓸함이 없다. 그럼 [B]에 '계절적 상황'은 있을까?

있다. 왜냐? 두견새는 여름 철새다. '네...? 선생님 뭐라고요...?'

나도 이해한다. 몰라도 된다. 수능 국어를 대비하려고 철새들이 날아오는 시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당장 인강 선생님들만 해도 [B]에 계절적 상황이 없다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몰라도 된다는 거다.

그러나 TMI를 TMI로만 끝내지는 말자. 만약 구체적인 새의 종류, 또는 꽃의 이름이 제시되었다면 우리는 '계절적 상황'이 있음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철새가 날아오는 시기나 각 꽃의 개화 시기를 알 필요는 없어도, 새들이 우는 시기 혹은 꽃이 피는 시기는 대부분 계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2020 6월 모의고사 [32~36] 「유원십이곡」

유정(有情)코 무심(無心)홀 손 아마도 풍진(風塵) 봉우(朋友)  
무심(無心)코 유정(有情)홀 손 아마도 강호(江湖) 구로(鷗鷺)  
㉠ 이제야 작비급시(昨非今是)\*을 쉰드른가 호노라

<제8장>

**Comment.** '유정코 무심', '무심코 유정'은 도대체  
뭔 개소리일까? 알 필요 없다. 「유원십이곡」은 전  
형적인 '속세vs자연' 구도의 고전시이다. 앞서 이  
미 '홍진vs백운', '인간vs물외'로 그 구도가 나왔으  
니, 우리가 <제8장>에서 챙겨야 할 정보는 '풍진  
vs강호'다. 그러면, 아, 풍진은 속세고 강호는 자연  
이겠구나, '유정코 무심'은 속세의 속성이고 '무심  
코 유정'은 자연의 속성이구나, 정도만 챙겨가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항대립으로 읽히는 시  
는 상당히 쉬운 시다. 현대시에는, 2017 수능에  
출제된 「구름의 파수병」이 그 예시다(시vs~시).

2020 6월 모의고사 [27~31]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  
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  
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Comment+TMI.**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실  
제로 바젤 Ⅲ 협약의 도입과 함께 이루어졌다. 당  
시 6평은 수능과 상당한 내용적 연계성이 있었다.  
이번 수능은 아닐까? 기출 비문학의 내용을 최대  
한 자신의 배경지식으로 가져가보자.

당부.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  
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③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20 6월 당시에 이 지문에서는 충분조건/필요조  
건에 대한 얘기가 매우 직접적으로 나왔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  
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이 문  
장을 이해하고 못하고가 지문을 받아들이는 정도  
에 상당한 차이를 유발했다. '필요조건', '충분조건'  
이거 뭘지 몰라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https://orbi.kr/00032488454>

이해항 선생님이 쓰신 [국어 시험에 필요충분조  
건이 웬 말?]을 한 번 읽어보기를 간곡히 권한다.  
첨부된 영상까지 보는데 30분이면 끝난다.

개인적으로는 논란이 되었던 '끈 밀어올리기' 문  
제도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영역에서 설명이 가  
능하다고 본다. 다만 이런 문제의 해설 논란을 탐  
닉하는 것이 이 시기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  
으니 생략한다.

2020 6월 모의고사 [37~42]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지는 않는다. 어떤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 이룬다고  
할 때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가령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 DNA 염기 서열과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니다. 그래서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흔히 제시된다.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생각해 볼 지점들.

- 1. 인과성 얘기는 지문에서 어떻게 활용되나?
- 2. 공생발생설이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유와, 이  
후에 뒷받침된 근거는 무엇인가?
- 3. 개체성과 공생의 관계는 무엇인가?

2020 9월 모의고사 [2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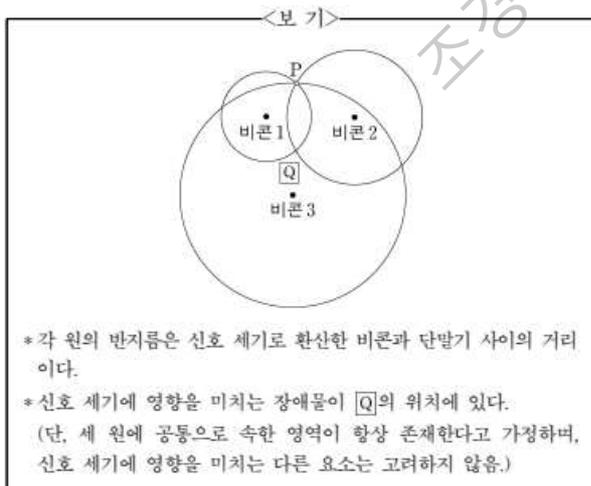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 법물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해 볼 지점들.

1. 마지막 두 문장(이러한~볼 수 있다.)을 나는 처음에 제대로 이해했나?
2. 점유vs소유는 어떨 때 다르고 어떨 때 구분하기 힘들었나? 그리고, 이런 지문을 시험장에서 접한다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해야 할까?

2020 9월 모의고사 [38~41]

41. <보기>는 단말기가 3개의 비콘 신호를 받은 상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생각해 볼 지점들.

1. 이 문제를 처음에 틀렸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2. 왜 41번 문제에는 '위치 지도 기법' 얘기가 없을까?

2020 수능 [4~7]

[4~7] (가)는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토론 후 과제'에 따라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Comment.** 2021 9평은 화작이 무난하다는 얘기가 많았고, 그 대표적인 이유는 '토론형 문제'의 부재이다. 19수능이나, 20수능처럼 토론형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 인물들의 발화를 어떻게 처리해서 풀어야 할지 고민해보자.

더하여, 웬만하면 화작은 대강 쓱 읽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만 밑줄 또는 동그라미로 표시해놓고, 찾아서 풀 것을 권하는 편이다. 어차피 처음에 꼼꼼히 읽어도 문제로 가면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생각해 볼 지점.

1. 화작에서 무조건 문제로 나오는 표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최근 기출을 보며 스스로 정리해보자. 왜, 시각 자료를 쓴다거나, 청중에게 질문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 있잖아?

2020 수능 [21~25] 「월선헌십육경가」

여생이 언마치리 백발이 날로 기니  
 세상 공명은 계륙이나 다룰소나  
 ㉠ 강호 어조(魚鳥)에 새 밍세 집퍼시니  
 옥당금마(玉堂金馬)\*의 몽혼(夢魂)\*이 섯긔였다  
 초당연월(草堂煙月)의 시름업시 누워 이서  
 촌주강어(村酒江魚)로 장일취(長日醉)를 원(願)호노라

Topic. '옥당금마의 몽혼이 섯긔였다'

'섯긔였다'는 '섞이었다'로 해석되기도, '성기다(사이가 서먹하다, 희미하다)'로 해석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강호 어조(자연)에서의 맹세와 옥당금마의 몽혼(관직에 대한 관심)이 반반이라는 정도로, 후자의 경우 관직에 대한 관심은 희미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뜻이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① ㉓는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긍정하지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을, ②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 몸담고 있지만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나타낸다.

**개인적인 의견 :** '섯기였다'는 몰라도 되는 단어다.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화자는 일단 자연에 있다. '백발'이 날로 늘 정도로 나이를 많이 먹었고, 세상 공명이 '계륵'이란다. 관직을 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직 생활의 꿈이 셋기였다'라고 말한다면, 화자의 심리는 무엇일까? '계륵'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것을 말하고, 애초에 관직 생활 언급을 하는 것부터 이미 미련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일단은 자연에 있음, 늙어감) 때문에 그 꿈을 점차 포기하게 되고, 그에 대한 염원이 점차 열어질 것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미련이 남아 있지만 점점 열려져간다는 점에서 '섞이었다'로 해석해도, '성기였다'로 해석해도 맞는 말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㉓ 한 줄이 아니라 그 이전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었다는 얘기다.

**생각해 볼 지점들.**

1. 시험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2. 지금 시점에 고전시가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3. '미련이 희미해졌다'로 해석한다면 '미련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없나?

2020 수능 [37~42]

**하나하나 한 이야기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1. 이렇게 분수식을 직접 주었거나, 쓸 수 있다면, 분자와 분모가 지문 내에서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 BIS 비율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주목하자.

40.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Ⅱ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항목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채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2. 계산을 요하는 문제가 너무 더럽게 나온다면 본인이 잘못 풀고 있는 게 아닌가 한 번 생각해 보자. 당시 분모는 1000억원이었고, 평가원은 대개 문과 친구들을 배려하여 분모를 10의 제곱수로 줄 것이다. 아니면 정말 간단한 연산이거나(189월 LP 양자 컴퓨터). 이때 분모를 국채+회사채만 해서 600억으로 두고 풀었던 친구들은 계산이 뭔가 더러움을 느끼고 지문을 다시 읽었어야 했다. 2번은 정말 하나하나한 얘기였다. 분모가 10의 제곱수가 아닌 문제가 수능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계산이 뭔가 너무 힘들다면 계산이 아니라 독해가 잘못된 것인지 의심해보라는 얘기.

2021 6월 모의고사 [8~10]

② 1문단에서 물의 인체 내 역할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제시한다.

생각해 볼 지점들.

1.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화작에서 낯선 선지다. 이 문제가 수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맞춰야 했을까?
2. 그동안 비문학에서 글의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에 '인과성'이라는 단어가 빈출되었다. '인과적', '인과성'이 맞는 선지였던 비문학 기출과 비교해보자.

**Comment.** 생각해보자고 하긴 했지만, 수능에는 보통 익숙한 선지들만 나온다. 6평 9평에 특이한 케이스가 나왔다고 너무 쫄지는 말자.

2021 6월 모의고사 14번

14. <보기>의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걸음이다. 그것을 꾸준히 하게 ㉡실천하기 ㉢원한다면 제대로 ㉣된 계획 세우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 ①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주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③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보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다.

**Comment.** '문장'은 문법의 꽃이다. 문법의 모든 단원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어야 접근이 가능하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문장'만 공부할 게 아니라, 이전의 단원들도 복습이 필요하다.

2021 6월 모의고사 [16~21]

(가)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Topic. (가) (나)형의 등장

이전에도 (가)~(마)의 형태로 문단을 나눈 지문들이 종종 있었다. 새로운 시도는 아니나, 6월, 9월, 22예비 모두 (가) (나)형이 출제되었으니 수능에도 출제되리라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Question.** '(가) 읽고 (가) 문제 풀고, (나) 읽고 (나) 문제 풀면 안될까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가령 이 지문의 경우, (가)와 (나)를 엮어 읽어야 이해가 용이한 부분이 있다. '익명성'에 관한 입장, '세습'에 관한 입장이 뚜렷이 대조되므로, 아마 쪽 읽고 문제로 넘어가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Comment. (가) (나) 형에 대한 접근

솔직히 말해, 뭐가 그리 특별한지 잘 모르겠다. (가) (나)형이 신유형이라고, 뭔가 다른 공부를 요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6평, 9평, 22예비에서 (가)와 (나) 사이의 관계가 모두 달랐다. 6평은 대조, 9평은 비슷하지만 다른 주제, 9평은 이어지는 주제라는 점에서 특별히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 그냥 기존에 공부하던 대로 공부하자.

2021 6월 모의고사 [22~24] 「산상의 노래」

23.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웃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샹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Comment.** 조지훈 「산상의 노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포인트는 단연 '수미상관'이다. 선지에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주진 않았지만, 23번 문제는 수미상관의 가장 강력한 특징을 물어본다.

수미상관에서 가장 눈여겨 볼 지점은, '달라진 부분'이다. 첫 연과 마지막 연에서 바뀐 지점이, 시의 전체 내용을 함축할 가능성이 크다.

23번 문제의 핵심은 '변화'다. 울게 한 문제가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게 된 것. 과거의 고통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로, 부정적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생명력 회복 이전과 이후.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https://orbi.kr/00031271872>

여기다 열심히 써 놓았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2021 6월 모의고사 [25~28]

③ ㉠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하고

**Comment.**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가 아니라 '빌딩 모서리'가 특징점으로 선택되었다. 지문에서 A에 대해 서술했는데 돌연 선지에서 A의 B를 제시한다면? 틀릴 가능성이 크다. 자주 나오는 함정 패턴이다.

2021 6월 모의고사 [41~45] 「전우치전」

42.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가)를 이해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일반적으로 영웅 소설에서 주인공은 고난을 겪지만 조력자를 만나 병서나 무기 등을 얻어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주인공은 유교적 이념을 존중하는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영웅 소설과 「전우치전」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 1:** 전우치가 천서를 익혀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된 것은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

**학생 2:** 전우치가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것은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

**학생 3:** 전우치가 임신양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나라에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며 떨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학생 4:** 전우치가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한 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학생 5:** 전우치가 재산을 훔쳐 노복에게 주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 ① ㉠      ② ㉡      ③ ㉢      ④ ㉣      ⑤ ㉤

**Comment.** 이거, '충'이 뭐고, '효'가 뭔지 모르면 못 푼다. 고전소설과 고전시가에는 클리셰가 있고, 유교 윤리가 있다. 여기에 대해 전혀 감각이 없다면 EBS 운문 해설들을 참고하길 바란다.

거울을 연신 깨던 전우치. ㉣한 거울에 눈이 멈춘다. 작고 투박하다. 앞면은 청동이라 탁하고 뒷면은 자개로 덮여 있다. 전우치가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

② ㉠: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에 가득 담아야겠군.

**Comment.** 우리가 읽는 수능 문학 지문에서 의미가 없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자. 특히 문제에서 밑줄을 쳐줬다면 더더욱 그렇다. 거울에 전우치의 눈이 멈춤을 제시했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그 이유는 이후, 전우치가 그 거울을 주머니에 넣으며 행동으로 이어진다.

2021 9월 모의고사 15번

- ① ‘말쓰·미’와 ‘흙·배’에 쓰인 주격 조사는 그 형태가 동일하군.
- ② ‘하·나라’의 ‘하다’는 현대 국어의 동사 ‘하다’와 품사가 동일하군.
- ③ ‘이·룰’과 ‘새·로’에는 동일한 강약을 표시하는 방점이 쓰였군.
- ④ ‘히·며’와 ‘便便安안·크 흐·고·져’에는 모두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⑤ ‘뿌·베’에는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쓰다’가 쓰였군.

**Comment.** 이거 과연, ‘방점’을 몰라서 틀렸을까? 문법적 베이스가 있다면 1,2,4,5 선지를 모두 지울 수 있었어야 했다. 결국 시험장에서는 소거법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셋. 베이스, 감, 자신감이다.

2021 9월 모의고사 [26~30]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갑은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인근 자연 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한다. 현수막 설치에 관한 행정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시청에 문의하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의하신 규격의 현수막을 설치하시려면 설치 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에 의하면, 신고 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 ○○시 지방 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에 따르셔야 합니다.

- ① ㉠의 제3조의 내용에서 ㉡의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의 제5조는 ㉠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겠군.
- ③ ㉡는 ㉠와 달리 입법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쳤겠군.
- ④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 ⑤ ㉢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군.

**Comment.** 이거, 앞의 27, 28번보다 훨씬 쉽다. 올해 비문학 <보기> 문제 중 작년만큼 어려운 난이도는 없다. 수능도 그럴 가능성이 크니 너무 쫓지 말자.

2021 9월 모의고사 [31~33] 「심청전」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심청전」은 효의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의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심청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희생을 선택함으로써 정작 부친 곁에 남아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심청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이다. 그리고 심청의 자기희생의 목적이었던 부친의 개안(開眼)이 뒤늦게 실현되는 것은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들로 인해 결말은 보다 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고 심청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더욱 강조된다.

**Comment.** 기출을 분석하며 느낀 점이 있다. 평가원이 고전 소설을 낼 때, ‘우리가 안다고 가정하고 출제하는 지문’과 ‘우리가 모른다고 가정하고 출제하는 지문’이 나뉜다. 전자의 경우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간다. 후자의 경우, 내용일치와 표현법에 힘을 많이 준다. 「심청전」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안다고 가정하고 출제하는 지문’이다. 심청전, 흥길동전, 춘향전, 별주부전 등등, 이런 작품들 중에 즐거리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작품이 있다면 찾아보거나, EBS 해설을 참고하길 권한다.

참고로, 저 <보기>는 교과서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이다. ‘심청이 인당수에 빠진 게 과연 효도일까?’라는 토론 주제로 학생들한테 권해졌다.

현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저 <보기> 해석이 완전히 되었어야 했다. ‘모순적 상황’은 무엇인가?

(가)

㉔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Comment.** 이 정도 내용은 익숙해지는게 어떨까? '나' 빼곤 다 외부세계다.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사회 전체든 말이다.

39.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놈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놈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② '바깥 곳 뭘?'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너나쁜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③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퇴'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④ '님천'에서의 '만홍'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39번 문제에서 다섯 개 선지의 '외부 세계'는 전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다. 기출 복습을 했음에도 이걸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 자료 전체를 정말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강산이 도타 훔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브리 갑고자 훔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제6수>

-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Topic.** '관념적'을 판단하는 방법

① 포괄성

'강산'은 이전의 '산수', '바위', '띠집' 등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이다. 포괄성이 커질수록, 큰 범주일수록 관념성은 커진다.

② 내면과 결부

내면의 의식과 결부될수록 구체성은 떨어지고 관념성은 커진다. '님군 은혜'라는 추상적 개념과 연결되었으니 관념성은 크다.

③ 단어의 뜻

'강산'에는 '사회 전체, 국가 일반'이라는 뜻이 있다. 단어부터가 관념적이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는 것이 정확하다.

<https://orbi.kr/00032237314>

2022 예비시행 [11~15] 「박씨전」, 「조보」

- ② 공적 정보인 조보를 사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조보의 공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굵어모은 물화로 청탁을 하여 남편을 절도사까지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는,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겠군.

**Comment.** 주인공에 대한 부정적인 선지가 있으면 틀렸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이 있다. 주인공은 꼭 착하고 올바른 일만 하는 건 아니다. 편견에 갇히지 말자...

2022 예비시행 [22~25]

**Comment.** 정말 열심히 분석할 가치가 있는 지문이다. 문제가 물어보는 포인트도 좋았고, **비평과 이본**이라는 유형은 이번 수능에도 나올 수 있다.

개야 즈치 말라 밤 사롬 다 도듯가  
즈목지 호고려 님 지슘 덩겨스라  
그 개도 호고려 개로다 듯고 즘즘호느라

생각해 볼 지점.

‘도듯가’는 학생이 알 수가 없는 어휘다.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했을까?

- ④ (라)가 한일신협약을 비판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라면, ‘개 규칙’은 한일신협약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겠군.

**Comment.** (라)의 ‘개’는 지문에서 ‘정미칠적’이라고 정해줬다. 이때 ‘개규칙’은 ‘개가 만든’ 법이 아니라, ‘개에게 적용되는’ 가상의 법이다. 굉장히 객관적인 문법적 요소로 정답을 낸다는 점에서, 21 9월의 44번, 45번 문제의 포인트와 유사하다. 이 문제들을 같이 분석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자. 수능에도 이번 9평, 예비와 유사하게 틀린 선지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2022 예비시행 [26~29] 「무정」

28. **어린이**와 **어른**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린이가 윤리적으로 순결한 자라면, 어른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이다.
- ② 어린이가 권력에 복종하는 사회적 약자라면, 어른은 약자를 지배하는 권력자이다.
- ③ 어린이가 새로운 풍습에 적응하는 자라면, 어른은 기존의 풍습에 얽매인 자이다.
- ④ 어린이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위축되는 자라면, 어른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이다.
- ⑤ 어린이가 공동체의 이상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라면, 어른은 공동체의 이상을 체득한 자이다.

**Comment.** 28번 문제는 요즘 기출에서는 정말 드물게, 문학에서 어떤 표현의 ‘의미’를 물어보는 유형이다.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 조금 힌트를 주자면, (1)주인공은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어린이에 불과했음을 깨달았고, (2)자기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인생을 깨닫지도, 사랑을 의논할 수도, 학생을 가르칠 수도 없다고 말한다. ‘어른’과 ‘어린이’ 중 뭐가 긍정적이고 뭐가 부정적인지 알 수 있겠지?**

2022 예비시행 [5~10]

- ㉠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프니츠는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는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를 것이다.

생각해 볼 지점들.

1.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데카르트는 이 원론을 지지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하나? 3문단에 하나, 4문단에 하나가 제시되었다.
2. 그러면 동일론자들이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가 이원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선 지점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것도 3문단에 하나, 4문단에 하나가 제시되었다.